

# 꼬꼬마 양배추 인기몰이

군산시농기술센터 해외수출용 육성... 국내 선호도 급증  
농식품 소비트렌드 소형화로 대형마트 판매비중 30%

꼬꼬마양배추가 지난 5월 한달 판매량이 예상의 2배를 뛰어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군산시농기술센터(소장 김창환)는 해외수출을 겨냥해 육성한 소형 양배추 품종인 '꼬꼬마양배추'가 국내에서도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당초 양배추 소비량이 많은 대만과 일본에 수출을 목적으로 꼬꼬마양배추를 육성하였으나, 최근 국내시장에서도 너무 커서 부담이 되는 일반양배추 대신 소형인 꼬꼬마양배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세대원수별 세대수현황'을 보면 1인세대가 38%, 2인세대가 23%로 1~2인가구가 전체 세대의 61%를 넘었다.  
또한 혼밥문화, 집밥 선호 등 식생활 패턴변화와 함께 농식품 소비트렌드

도 소형화로 소비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꼬꼬마 양배추를 유통하는 롯데마트 체스토의 봉원규차장은 "처음 군산양배추를 선보이면서 예상했던 소형양배추로 소비이동 15%를 뛰어넘어 현재 매장 판매량의 30%를 꼬꼬마양배추가 점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재구매 의사가 75% 이상으로 높아서 판매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농기술센터에서 꼬꼬마양배추 출하 수급조절을 위해 비닐하우스 3ha에서 조기 재배한 60여톤은 5월 중순부터 공급을 시작해 15일만에 수출 24톤, 롯데마트 30톤 가공용 6톤 등 전망 소진됐다.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노지 꼬꼬마 양배추가 수확되면서 늘어나는 수요량에 추가공급은 원활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기술보급과 김미정 과장은 "소형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중심의 품종선택과 달고 아삭한 맛과 영양까지 겸비한 꼬꼬마 양배추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이다"며 "소비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개발과 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지난 5월 대만 수출에 이어 6월부터는 대만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매월 24톤을 연말까지 수출해 연간 300여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형 일자리' 추진 불지퍼

정현울 시장, 계획수립 · 용역 등 전 과정 총괄 TF팀 구성 지시

익산시가 '익산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해결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울 시장은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익산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부터 용역 실시, 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익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현재 모든 면에서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박차를 가하면 얼마든지 익산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별로 주어진 인구영향평가 과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일상 업무에서부터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꼼꼼히 챙기는 등 모든 공무원들이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세대적인 인구복지 운동

추진, 청년 기본수당 지급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시민들이 악취에서 완전히 해방될 여름을 맞이할 수 있게 악취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요즘 많은 시민들이 작년보다 확실히 악취가 없어졌다고 말한다"고 언급하며 "지금까지 악취해소를 위해 시에서 노력해 온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올해는 시민들이 악취에서 완전히 해방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악취 관리에 더욱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익산형 서부 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을 확대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시내버스 시간간격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정이 늦어져도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시 공공배달앱 추진 보류, 전북도와 속도 맞추다

"지자체 개별 앱보다 광역 차원 더 경쟁력" 의견 반영  
익산시가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던 공공배달앱 개발 사업에 대해 전북도에서 이를 광역 차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에 따라 전북도와 속도를 맞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공공배달앱 추진을 검토하면서 오는 추경예산안 반영을 위해 배달앱 업체들과 면담을 비롯해 시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는 등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북도에서 광역단위 공공 배달앱 개발을 연구과제로 정함에 따라 전북도의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 자체 배달앱 추진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5월 12일 전북도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모두 시군별 자체적인 공공 배달앱 개발보다



익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하절기 장마·태풍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음압 컨테이너형 선별 진료소를 제작 설치하여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 익산시, 음압 컨테이너형 선별 진료소 설치

익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하절기 장마·태풍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상시 운영 할 수 있는 음압 컨테이너형 선별 진료소를 제작 설치하여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선별진료소는 가로10m, 세로3m, 높이3m 규모에 역화조사 1실, 위킹스루 3실, 검체보관 1실, 진료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공간에 음압, 냉난방 시설, 해파 필터 공기 정화기능을 모두 갖추어 방문자와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방수나 단열, 화재 위험에도 효과가 있도록 기본 철골 구조에 난연 우레탄

판널 재질로 설계하고 방화문도 설치했으며 캐노피도 함께 달아 위킹스루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햇빛과 눈 비등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각 1M\*1M 크기의 위킹스루 3개실에 (핸즈프리로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 호출 및 통화 가능), 공기정화장치(해파 필터 부착)가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진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할 수 있으며 보호복 착용도 필요 없으며 의료진의 더위와 피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2020군산시간여행축제, 플라마켓 셀러모집

군산시가 올 군산시간여행축제에 함께할 플라마켓 셀러를 모집하며 시민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제8회 군산시간여행 축제에 함께 할 플라마켓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플라마켓은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이며, 모집분야는 군산의 특색이 담긴 상품 핸드메이드

공방/공예, 액세서리, 공산품/잡화, 의류 등으로 군산시간여행축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자 선정은 모집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가 직접 추천해 선정한다.  
올해 플라마켓의 운영방식은 전년도와 다르게, 유사한 품목의 상품들을 그룹화해 진행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보다 쉽게 상품을 비교,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함이며, 부스 구성면에서도 더욱 정돈된

플라마켓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플라마켓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되고, 축제기간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북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플라마켓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간여행 홈페이지(<http://festival.gunsan.gov.kr>) 공지사항 또는 군산시 관광진흥과 ☎063-454-330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장마철 특별점검

군산시가 하절기 장마철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고 8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번 감시활동은 오는 8월까지 실시되고,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고장에 따른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의 시정점검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민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청년농업인 단체

### 해외 연수비 전액 반납

익산시 청년농업인 4개 단체가 올해 해외연수비 2.625만원 전액을 익산시에 반납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청년농업인 4개 단체인 △청춘어람 △청년농업연구회 △청년창업농은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춘어람 황인영 대표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익산시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연수비 반납은 당연한 도리"임을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 전주매일 금연캠페인